

주희정 ‘속공 3점슛’ 득실 놓고 의견 분분

SK, 모비스와 4강 PO 2차전 승리 비결 실패 땀 공격권 날려 슈터들 시도 줄어 감독들도 호불호…유재학 “못던지게 해” 문경은 “중요한 한방 해줄 거라 믿었다”

25일 울산 동천체육관에서 열렸던 SK-모비스의 ‘2013~2014 KB국민카드 프로농구’ 4강 플레이오프(PO) 2차전에선 ‘속공 3점슛’이 화두에 올랐다. 이날 5개의 3점슛을 터뜨린 주희정(SK)은 4쿼터에만 3개의 3점슛을 꽂았는데, 이 중 경기의 흐름을 바꾼 2개의 3점슛이 바로 속공에서 나온 3점슛이었다. 그러나 팀 동료들이 공격진용을 채 갖추기도 전에 쏜 슛이라, 이를 두고 이런저런 평가가 나오고 있다. 실패 시에는 허무하게 한 차례의 공격권을 날려버릴 수도 있는 위험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팀을 살리거나, 망치거나…

모비스 유재학 감독은 속공 3점슛에 대해 “모 아니면 도와 같은 식의 플레이다. 팀을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다. 나는 선수들에게 속



공 3점슛을 못 던지게 한다”고 말했다. 과거 유 감독은 전자랜드 사령탑 시절 SK 문경은 감독을 선수로 두고 있었는데, 당시 문 감독의 특기가 속공 3점슛이었다. 유 감독은 “문 감독은 워낙 슛 던지기를 좋아했던 데다 확률이 높아 서 못 던지게 막지는 않았다”고 떠올렸다.

주희정의 속공 3점슛은 모비스와의 4강 PO 2차전에서 SK를 살린 무기였다. 선수시절 속공 3점슛을 즐겨 던졌던 문 감독은 “주희정의 3점슛을 보고 속이 다 시원했다. 1차전에서 선수들이 슛을 아끼다가 실패만 범하고 완패를 당했다. 2차전에서 적극적으로 슛을 던지라고 주문했는데, 때마침 주희정이 잘 풀어줬다”며 속공 3점슛을 반겼다.

●‘슈터상실시대’에서 빛난 주희정의 자신감

속공 3점슛은 과거 문경은 감독을 비롯해 조성원, 김병철 등 한국농구를 주름 잡았던 슈터

들의 전유물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LG 문태종 정도만이 속공 3점슛을 구사할 정도로 드물어졌다. 대부분의 팀들은 철저하게 안전한 득점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정봉슈터의 부재도 또 다른 이유다. 유재학 감독은 속공 3점슛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면서도 “배포와 자신감 없이는 던지고 싶어도 못 던진다. 주희정이 그 상황에서 슛을 던졌다는 건 자신감이 있다는 이야기다”고 말했다.

주희정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슛 없는 선수’로 유명했다. 상대팀 가드들이 주희정의 외곽슛은 아예 버려두고 골밑에 도둑수비를 갖는 정도다. 외곽슛이 약했던 그의 속공 3점슛은 철저한 노력의 산물이다. 주희정은 “흐름을 가져오는 득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마침 찬스가 왔다. 넣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고, 설사 넣지 못하더라도 코트니 심스가 무조건 리바운드를 잡아주리라는 믿음이 있었다”고 밝혔다. 문 감독은 “(주)희정이는 지금도 슛 연습을 가장 많이 하는 선수다. 중요한 순간에 한방을 해줄 것이라 믿었다”며 신뢰를 보냈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트위터 @stopwook15

아마추어농구 심판들 “협회가 판정에 부당한 관여”

문체부 스포츠 4대약 신고센터 통해 폭로

아마추어농구 심판들이 판정에 협회 내부의 압력이 있었다고 폭로해 파문이 일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는 26일 대한농구

협회 전임심판 11명 중 8명이 지난해 세종시 소재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 4대약 신고센터’를 직접 찾아 “협회 인사에 의해 반복적으로 심판 판정에 대한 부당한 관여가 있었다. 향후 재발 방지 조치를 마련해달라”는 내용의 진정

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문체부 관계자는 “제출된 진정서에는 지난해 전국체육대회 등에서 의 외압 사례가 담겨있다”며 “진정 내용에 관해 문체부가 직접 또는 대한체육회를 통해 사실 확인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농구협회는 진정 내용을 부인하는 한편 조사에 적극 협조해 해명하겠다고는 의사를 밝혔다. 김도현 기자



LG의 챔프전 진출을 이끈 데이본 제퍼슨(41번)이 26일 부산 사직체육관에서 열린 kt와의 4강 PO 3차전에서 아이라 클라크의 수비를 피해 슛을 던지고 있다. 사적 | 뉴시스

제퍼슨 25점·13R LG, 13년만에 챔프전

3쿼터 4분간 10연속득점 ‘제퍼슨 타임’ kt 클라크·파틸로 혼신의 수비도 무위로



데이본 제퍼슨(28)이 LG에게 13시즌만의 챔프전

진출의 기쁨을 안겼다.

제퍼슨은 26일 부산 사직체육관에서 열린 ‘2013~2014 KB국민카드 프로농구’ kt와의 4강 플레이오프(PO·5전3승제) 3차전에서 25점을 쏟아 부으며 팀의 96-82 승리를 견인했다. 제퍼슨의 맹활약에 힘입어 kt와의 4강 PO에서 3연승을 거둔 LG는 2000~2001시즌 이후 13시즌 만에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하는 기쁨을 맛봤다.

이날 경기에 앞서 kt 전장진 감독은 “1·2차전에서 아이라 클라크와 후안 파틸로가 제퍼슨을 잘 막았다”며 제퍼슨 수비에 대해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어 전 감독은 “정규리그를 치르면서 제퍼슨의 공격루트, 김시래와

의 2대2에서의 움직임도 다 파악하고 있다. 경기 막판 중요한 순간에 수비를 놓치면서 경기를 내줬지만, 계획대로만 수비하면 좋은 승부를 펼칠 것이다”며 클라크와 파틸로의 수비에 기대감을 내비쳤다.

그러나 제퍼슨은 ‘알고도 못 막는 선수’였다. 클라크와 파틸로가 사력을 다해 제퍼슨 수비에 나섰지만, ‘클래스가 다른’ 제퍼슨의 공격 앞에 무기력했다. 전반에만 12점을 올린 제퍼슨은 3쿼터를 ‘제퍼슨 타임’으로 만들었다. 그는 3쿼터 2분여부터 약 4분간 혼자 10연속득점을 올리는 등 3쿼터에만 13점을 집중시켰다.

kt는 3쿼터 조성민과 오용준의 3점슛을 앞세워 분위기 반전에 나섰지만, 힘과 기술을 겸비한 제퍼슨의 득점에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제퍼슨의 활약으로 3쿼터를 68-63으로 앞선 LG는 4쿼터 유병훈(10점)과 크리스 메시(12점)의 지원사격까지 더해진 덕에 체력이 떨어진 kt의 추격을 뿌리칠 수 있었다.

사적 |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트위터 @stopwook15

편집 | 박재윤 기자 parkjy@donga.com 트위터@parkjyoon

아빠는 엄홍길, 엄마는 현정화, 나는 박태환, 우리는 만능 스포츠 가족입니다
TV에서 눈으로만 즐기던 것을 넘어 '내가 직접 즐기는 스포츠 세상'
국민 모두가 스포츠 스타라는 건강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오늘도 바쁘게 움직입니다.
국민모두가 우리 동네 스포츠 스타입니다

KSPON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3년 연속 수상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제도 바꾼다

현재 59명 구성 대의원총회 투표로 선출 선수·지도자·지방체육인사 등 배제 논란 내달 대국민토론회서 개선안 마련 계획

대한체육회(회장 김경행)가 체육 개혁의 일환으로 회장 선거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체육회는 “다음달 1일 체육회 산하 체육발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현행 회장 선거제도 개선안에 대한 기본방향을 논의한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체육회장 선거관리 규정에는 ‘회장은 체육회 산하 56개 정식 가맹경기단체의 수장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2명, 선수대표(체육회 선수위원회 위원장) 1명 등 총 59명으로 구성된 대의원 총회에서 투표를 통해 선출한다’고 명시돼 있다. 회장 선출시 선수, 지도자, 지방체육인사, 체육유관단체 등의 참여가 배제돼 있다는 지

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온 이유다. 이에 따라 체육회는 회장 선거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체육회는 이달 27일 체육발전위원회 제1소위원회를 시작으로 다음달 1일 체육발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회장 선거제도 개선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어 4월 중 선수, 지도자 등 범체육인을 대상으로 한 대국민토론회를 개최해 가맹경기단체, 시도체육회, 체육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회장 선거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체육회는 대한체육회장 선거제도 개선안을 향후 가맹경기단체의 회장 선거방식에도 도입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체육단체 조직운영이 투명해지고, 다양한 체육인이 집행부에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김도현 기자 dohoney@donga.com 트위터@kimdohoney